

# OECD 주요국 성별 무급노동 참여현황과 국가정책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손 문금(서울시여성가족재단)

## 1. 문제제기

남성의 무급노동참여에 대한 연구들에서 보이는 결론은, 남성들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무급노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론에 대한 의문은 남성은 왜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하고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무급노동에 참여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이 가진 인구학적 특성이나 가구단위에서 여성과 남성의 협상과정을 통해서, 남성의 무급노동참여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찾아내고자 노력해 왔다(손문금, 2005a; Jacobs, Jerry and Kathleen Gerson, 2004). 이러한 노력이 계속될 수 있었던 기저에는 현대사회가 가진 문제들로서 성평등을 증진시키고,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족 갈등을 감소시키는 전략으로 남성의 무급노동참여가 필요하다는 연구자들과 정책가들의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요즘 한국사회는 저출산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서울형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을 어린이집이나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통해 남성의 가사일과 가족돌보기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남운동본부는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남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가구단위와 국가단위 사이를 연계하여 남성의 무급노동참여를 지원하고 일-가족양립지원 정책을 제공하는 주체로 기업을 끌어들이고자 하지만, 기업의 참여도 더디고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정책의 문제점은 남성 개인변화에 의지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으로, 남성의 가족 내 역할이 남성의 인식변화, 아이들에 대한 남성의 태도변화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마인드 변화와 제도적 개선 등도 함께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남성의 무급노동참여를 국가의 정책적, 제도적 관점에서 이해해보고자 한다. 즉, 남성과 여성이 자신들의 가족을 돌보고,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데에는 정책적, 제도적인 일련의 국가적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 사회의 성 평등의 정도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남성의 가사노동이나 가족돌봄 노동에의 참여는 여성과 남성의 개인적인 가족 내 협상 뿐 아니라 국가정책 방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가시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사회의 정책 관점이 남성들이 개인적으로 더 많은 무급노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강조에서, 어떤 국가의 정책과 행위구조가 남성들의 무급노동을 촉진하거나 저지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 2. 무급노동에 대한 정의

무급노동에는 요리, 청소, 세탁, 쇼핑, 집안관리 등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가사노동과 아이들과 가족원을 돌보는 행동, 자원봉사 행동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무엇이 유급노동이고 무엇이 무급노동인지 구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일례로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는 한국인들의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 항목으로 TV나 비디오 시청, 스포츠 활동, 취미활동, 인터넷검색이나 컴퓨터게임, 여행, 문화예술관람 등의 항목과 함께 봉사활동과 가사 일이 동시에 제시되어 있다.

본 글에서는 UN의 무급노동에 대한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UN Economics & Social Affairs, 2005; UNDP, 2005). UN은 무급노동을 가구구성원에 의해 생산되는 시장에 내다팔지 않으며, 가족 안에서 가족 밖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으로 정의한다. 어떤 무급노동은 가족 안에서 소비되는데 예를 들어 요리, 정원손질, 청소와 같은 것이다. 무급노동은 또한 가구 내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소비되기도 하는데, 즉 집에 방문한 친구에게 대접하는 식사나 노숙인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요리를 하고 배식하는 행동들이 그렇다.

어떤 행동을 노동으로 보느냐, 아니면 비노동 즉 여가로 보느냐를 결정하는 방식은 제3자의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제3자가 그 행동에 대해 돈을 지급한다면, 그것은 노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리, 청소, 아이돌보기, 세탁, 애완동물돌보기, 정원손질 등은 가족원에 의해 수행되지 않고 제3자가 수행할 경우 모두 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급노동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공부하거나, 자거나, 음식을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독서를 하거나 하는 행동에 대해서 행위자에게 돈을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들은 노동이 아닌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물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 애완동물 산책시키기, 요리하기, 정원손질하기와 같은 어떤 무급노동은 마음가짐이나 시간압박의 정도 등에 따라 종종 즐거운 과정이 되기도 한다. 유사하게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일, 유급노동으로부터 개인적 만족을 이끌어내고 그들 직업에 시간투자 하는 것을 즐긴다. 따라서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느끼는 즐거움의 수준이 노동과 여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 3. 분석문제 및 분석자료

### 1) 분석문제

본 분석에서는 먼저, 성별 가사노동 및 가족돌보기 시간을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 남성과 여성의 위치를 살펴볼 것이다. 지금까지 여성과 남성의 가족 안에서 수행되는 무급노동 시간량이나 성별 격차에 대한 논의가 한국사회 안에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손문금, 2011; 2010; 2009), 그 지평을 넓혀 세계 선진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위치를 파악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OECD 주요국에서 성별 무급노동시간이 그 국가가 가진 노동시간정책, 가족지원정책, 성 평등정책 등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여성과 남성의 무급노동 분담과 남성들의 무급노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련요인들을 밝히고 있는 논의들은 가족단위의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손문금, 2005b). 하지만 이러한 개인

적 차원의 논의를 본 분석에서는 한 국가가 가진 정책적 특성으로 확장하여 그 연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정부 정책이 여성의 무급노동시간 부담의 정도와 남성의 무급노동 즉 가사노동과 가족돌봄노동 참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Hook, 2006). 예를 들어 보육정책의 발달은 어머니의 아이 돌보기 책임을 경감시켜주고,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첫째, 성별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국가의 노동시간정책의 측면을 나타내는 요소로는 연간근로시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 변수로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단위에서 성별 무급노동참여 정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시간가용설에서는 더 많은 자유시간을 가진 사람, 즉 유급노동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급노동을 더 많이 수행할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손문금, 2005b). 그러면 이러한 논의를 사회, 국가 차원으로 확장하면 그 사회가 가진 유급노동시간 즉 연간근로시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정도는 성별로 무급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의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연간근로시간이 증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은 경우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전통적 성역할 관계에 남아있고자 하는 경향이 커질 수 있다. 반면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강제하고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휴가를 주는 정책, 일과 가족을 양립하기 위한 시간제 노동의 선택은 근로자들이 무급노동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증가시킬 것이다(Jacobs and Gerson, 2004).

둘째, 한 국가의 가족지원 정책의 측면을 나타내는 요소로 GDP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의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의 무급노동 참여정도를 설명하는 생애주기이론은 부부에게 돌봐야 될 가족이 많은 경우 부부는 더 많은 시간을 무급노동을 수행하는데 보낼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족주기에 있는 가족의 남성은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한다(손문금, 2005b). 국가정책차원에서 보면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많을수록, 그리고 미취학아동에 대한 지원이 많을수록 가족 안에서 수행하여야 할 무급노동의 부담은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여성에게 있어 국가의 공적지원은 전통적 어머니역할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가족원 돌봄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주면서 무급노동의 대체수단을 제공해 줄 수 있다(Gornick and Meyers,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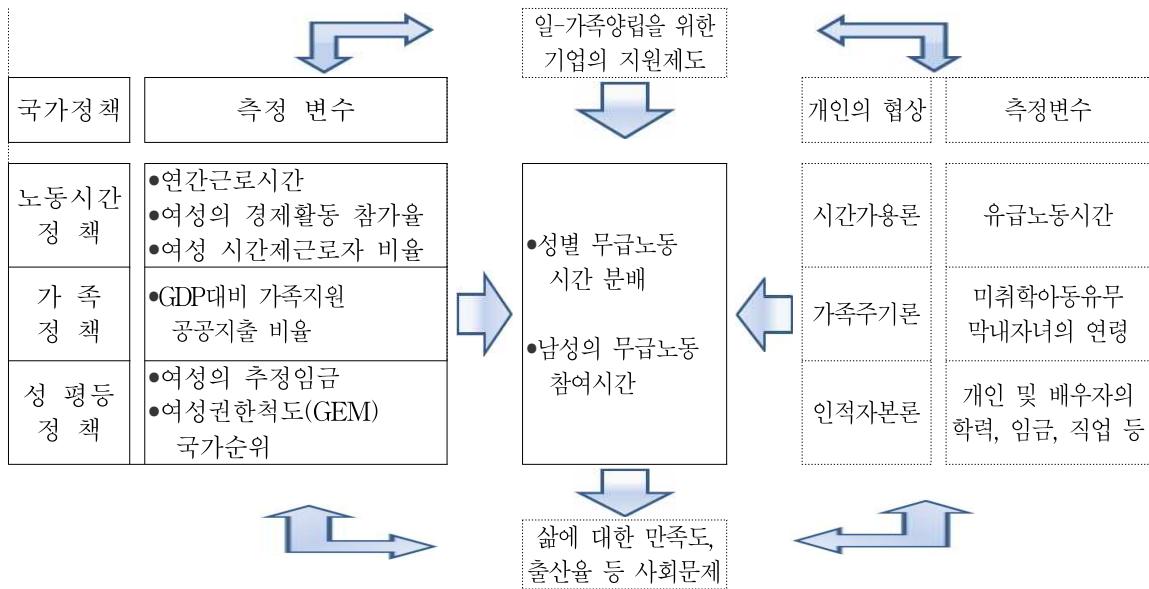
셋째, 한 국가의 성 평등 정책의 측면을 나타내는 요소로 여성의 임금수준과 경제·정치영역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한 정도를 보여주는 여성권한척도<sup>1)</sup> 국가순위 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개인의 무급노동참여 정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인적자본론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원을 더 많이 가진 배우자는 무급노동을 더 적게 수행한다고 가정하면서 아내가 유급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수입이 더 많고, 학력 등이 높으면 무급노동에 대해 보다 평등하게 분담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손문금, 2005b). 이러한 가정을 사회로 확장하여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따른 임금수준의 향상과 사회에서의 의사결정권한의 확대는 남성의 무급노동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여성은 남성과 협상할 수 있는 자원이 더 많기 때문에 유리한 협상의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별 무급노동의 분배는 여성친화적인 노동시장, 여성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권력이 높은 국가에서 더욱 평등하다는 결과가 있기도 하다(Iversen and Rosenbluth, 2006).<sup>2)</sup>

1)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는 UNDP에서 1995년부터 매년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는 성 평등 지표이다. 여성권한척도는 여성의원비율,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남녀소득비의 4가지 지표로 측정되고 있다.

2) 시간가용론, 인적자본론, 가족주기론 등에 입각한 가족단위의 개인차원에서 성별 무급노동 분배 및 남성의 무급노동 참여에 대한 자세한 논의내용은 손문금(2005), “맞벌이부부의 무급노동분담에 대한 실증적 연구: 생활

성별 무급노동시간의 양이나 분배정도와 관계를 가질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국가의 정책적, 제도적 측면들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성별 무급노동과 국가정책



## 2) 분석자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무급노동을 어느 정도나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급노동이 얼마나 여성과 남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생활시간조사 자료이다.

생활시간사용조사는 하루 24시간을 사람들이 개인유지, 유급노동, 무급노동, 개인유지, 이동 등의 행동들 중 세부 행동들에 시간을 어느 정도나 할당하고 있는지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조사이다. 게다가 이 조사에서는 누구와 함께 그 행동을 했는지, 어디에서 그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과 함께한 동시행동은 무엇인지, 하루에 그 행동을 몇 번이나 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정보와 가구정보를 가지고 있다.

본 분석의 OECD 주요국의 생활시간사용 실태에 대한 정보는 OECD에서 발간한 세계 주요국의 생활시간에 대한 분석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OECD Social Policy Division, 2010). OECD는 각국의 생활시간조사를 바탕으로 무급노동시간을 비교하기 위해 18개국<sup>3)</sup>의 15세 이상 성인의 주 행동(primary activities)시간을 비교하고 있다. 또한 각 행동은 무급노동, 학생의 학습(study)을 포함한 유급노동, 개인유지, 여가, 기타 시간 5가지로 분류하여 비교하고 있으며, 각 행동에 소요된 이동시간은 각 행동시간에 포함되어 있다. 본 분석에서는 18개국의 생활시간자료 중에서 성별 무급노동 참여시간과 관계가 있을

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5호, 동녘, 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OECD국가는 총30개국이며 그중 OECD는 멕시코, 일본, 한국, 폴란드,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터기, 미국,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프랑스, 핀란드, 독일, 벨기에 등 18개국의 생활시간 활용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제외된 국가는 오스트리아, 체코, 유럽공동체,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위스 등 12개국이다. 이 국가들은 생활시간조사가 시행되지 않거나 또는 시행된다고 할지라도 자료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것으로 생각되는 국가정책 요인들(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연간근로시간, GDP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율, 여성권한척도 순위, 여성추정임금 등)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터키를 제외한 17개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시간정책, 가족정책, 성 평등정책 등의 국가정책에 관련된 자료는 OECD Family Database에서 GDP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율(2008년), 출산율(2009년), 삶에 대한 만족도(2006~2009년)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하였다([http://www.oecd.org/document/4/0,3746,en\\_2649\\_34819\\_37836996\\_1\\_1\\_1\\_1,00.html](http://www.oecd.org/document/4/0,3746,en_2649_34819_37836996_1_1_1_1,00.html)). 또한 OECD employment outlook (2010)에서는 연간근로시간(2008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2009년), 여성의 시간제근로자 비율(2009년), 여성추정소득(2009년)에 대한 정보를 취하였다. 마지막으로 UNDP의 Human Development Report에 서 여성권한척도 국가별 순위(2009년) 정보를 파악하였다.

#### 4. OECD 주요국 성별 무급노동시간

##### 1) 성별 하루 생활시간 사용 현황과 한국

다음 <그림 1>을 보면 OECD국가의 여성과 남성이 주요 5가지 행동에 대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한국 여성과 남성이 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성별 무급노동 참여 정도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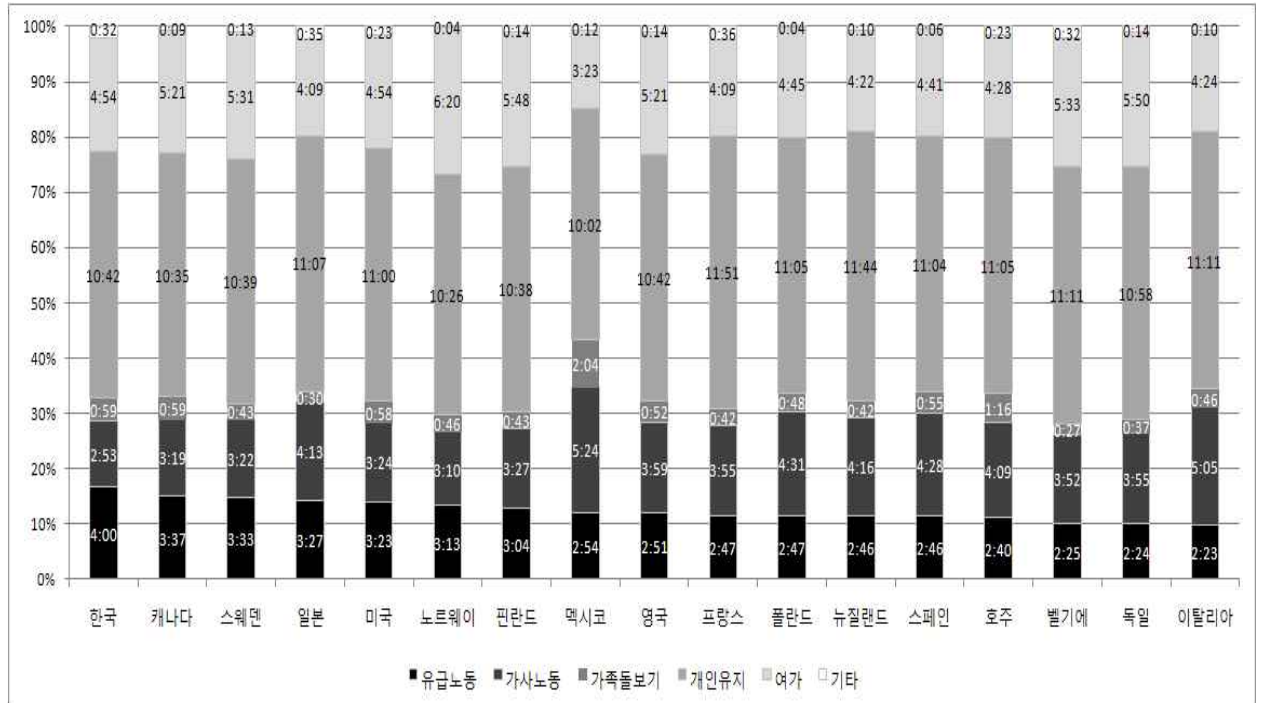
그림에서 보듯이 모든 나라에서 개인유지에 사용하는 시간이 가장 길고, 여성과 남성이 이에 차이도 가장 적은 시간에 속한다. 한국남성의 경우에도 개인유지 시간이 10시간 47분으로 여성의 10시간 42분과 단지 5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반면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국가별, 성별차이는 크다. 남성의 경우 멕시코에서는 7시간 12분의 유급노동시간을 가지는 반면, 벨기에는 3시간 45분을 가지고 있다. 여성의 경우 한국은 4시간으로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이탈리아의 경우 2시간 23분으로 가장 적은 유급노동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멕시코로 남성의 유급노동시간보다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4시간 18분이나 적고, 성별 유급노동시간의 차이가 가장 적은 나라는 스웨덴으로 1시간 16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이 여성의 유급노동시간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하루에 2시간 21분 유급노동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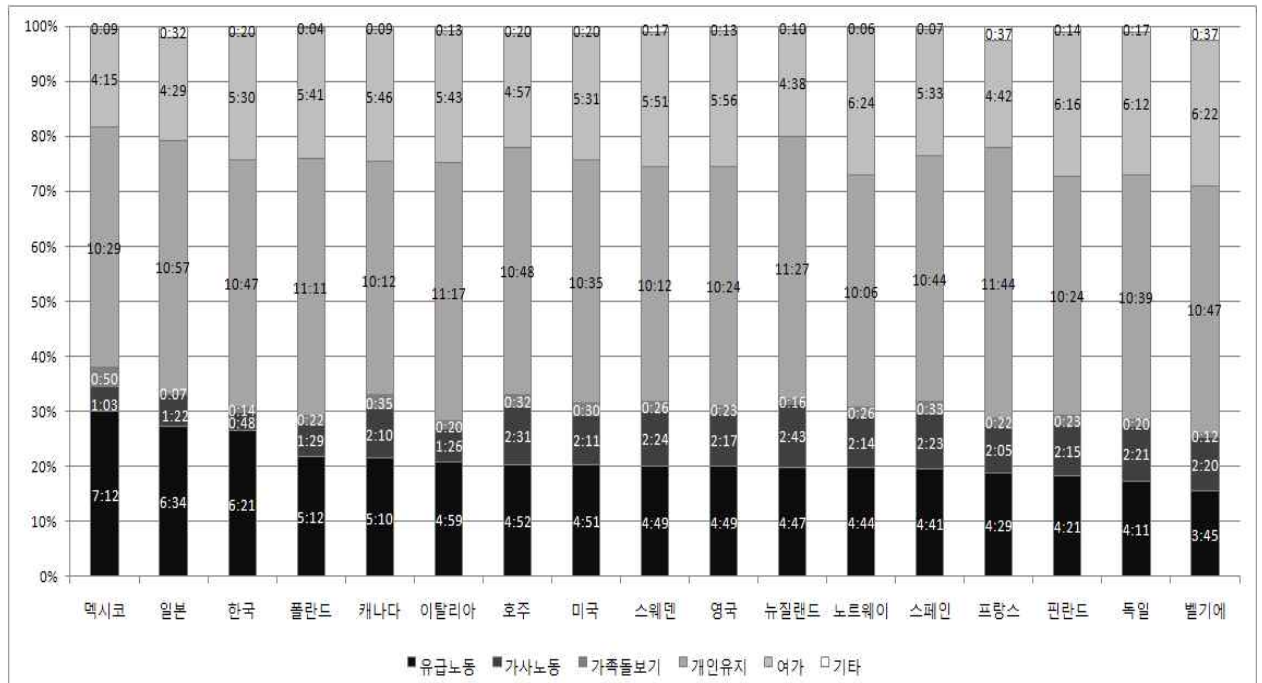
반면 모든 나라에서 여성은 무급노동에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 가사노동과 가족보살피기 시간을 합한 무급노동시간의 성별 차이가 가장 큰 나라도 역시 멕시코로 여성은 남성보다 적어도 총6시간 35분 더 많은 무급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노동의 경우 하루에 5배 이상(5시간 21분), 가족보살피기의 경우 두 배 이상(1시간 14분)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스웨덴과 덴마크 같은 국가의 경우에는 성별 무급노동시간의 차이도 가장 적어 하루에 1시간 15분, 1시간 16분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폴란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의 여성들은 남성보다 각각 280분, 245분, 194분, 170분 더 많은 무급노동시간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성별무급노동의 차이가 큰 국가들이 가지는 특징은 남성들이 무급노동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 참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국과 일본의 경우 1시간 30분 이하이고, 멕시코, 폴란드와 이탈리아 남성은 2시간 이하이다.<sup>4)</sup>

<그림 2> OECD 주요국 여성과 남성의 하루생활시간(15세 이상, (시간:분))

[여성]



[남성]



자료: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http://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OECD Social Policy Division(2010).

주: 생활시간조사 년도는 프랑스(1999), 핀란드, 헝가리(2000),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2001), 독일, 멕시코(2002), 이탈리아, 스페인(2003), 한국, 폴란드(2004), 캐나다(2005), 호주, 벨기에, 일본, 뉴질랜드, 미국(2006)임. 국가의 순서는 왼쪽부터 유급노동시간이 많은 순임

4) OECD Employment Outlook에 보면 2008년 한국의 연간근로시간은 2,256시간, 일본 1,772시간, 멕시코 1,839시간으로 한국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생활시간조사 결과에서는 여성의 경우 유급노동시간이 다른 국가보다 길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일본, 멕시코보다 한국의 유급노동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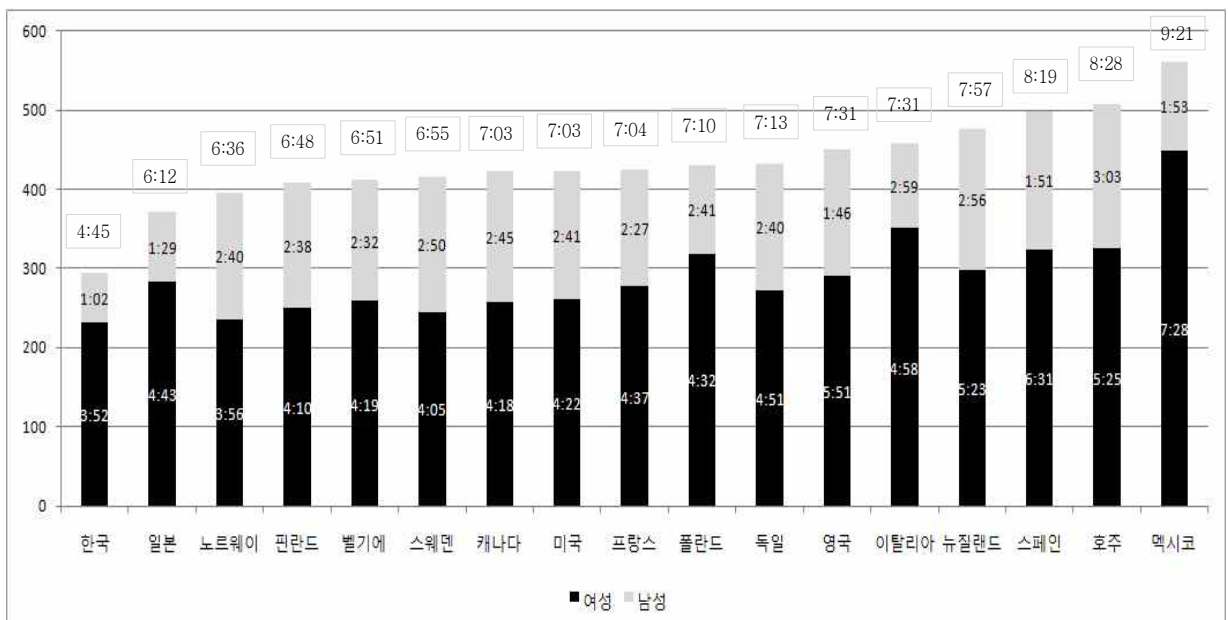
여가시간이 가장 긴 국가는 여성의 경우 독일로 하루 평균 5시간 50분의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었으며, 남성은 노르웨이로 하루 평균 6시간 24분의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여가시간이 가장 적은 국가는 여성과 남성 모두 멕시코로 여성은 하루에 3시간 23분, 남성은 4시간 15분의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 4시간 54분, 남성은 5시간 30분의 여가시간을 가져 남성이 하루 평균 36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 2) 성별 하루 무급노동시간 현황과 성별 격차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이 남성의 무급노동시간보다 길다고 해도, 남성의 적은 무급노동시간이 항상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으로 보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다른 나라에 비해 무급노동에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을 모두 합한 총무급노동시간이 하루 평균 4시간 54분으로 가사 일을 하거나 가족을 돌보면서 보내는 시간이 다른 국가보다 가장 적다. 이것은 의무로 규정된 유급노동시간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든,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든,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도가 높은 낮은, 실제로 수행되는 가족에 대한 돌봄실행 수준이 낮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 멕시코, 호주, 스페인, 뉴질랜드, 이탈리아 등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무급노동시간 사용이 다른 나라보다도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남성과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을 합한 총무급노동시간이 멕시코의 경우 하루 평균 9시간 21분이고 호주의 경우에는 8시간 28분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성별 하루 무급노동시간의 정도를 파악할 때에는 그 사회가 가진 성별 유급노동시간의 정도와 관련시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 여성의 경우 다른 국가보다도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길었다.

<그림 3> 여성과 남성의 무급노동시간 현황(시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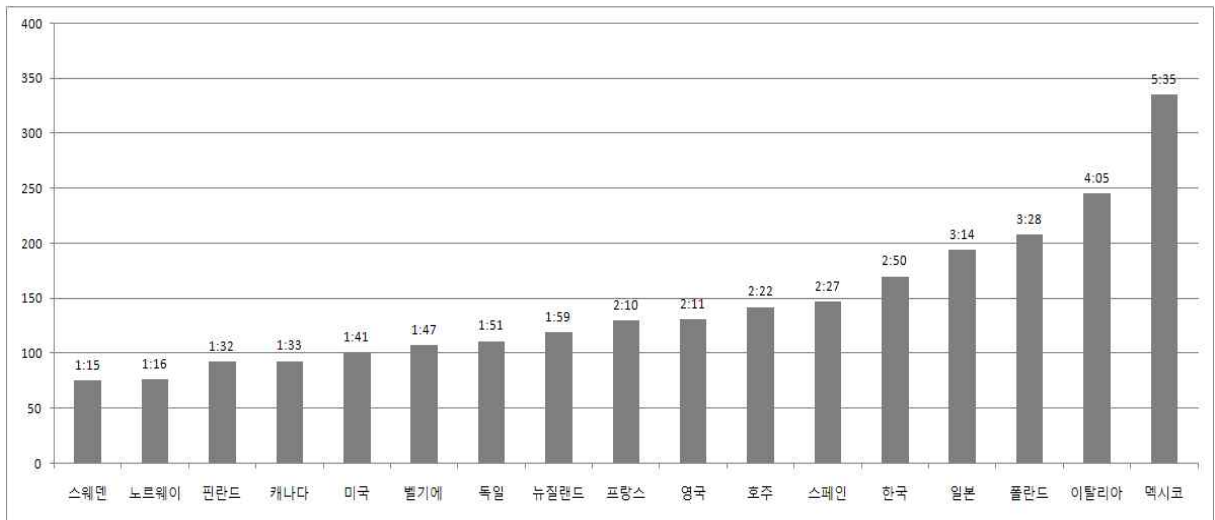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http://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OECD Social Policy Division(2010).

그러면 이러한 각 국가의 여성과 남성의 총무급노동시간이 성별 하루 무급노동시간에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수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총무급노동시간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의 격차가 각각 2시간 50분, 3시간 14분으로 큰 사회에 속하였다. 이것은 적은 시간의 무급노동조차 대부분 여성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사회라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한국과 일본 여성들은 무급노동시간이 하루 평균 각각 3시간 52분, 4시간 43분으로 이탈리아, 폴란드, 멕시코 사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의 여성들과 비슷한 정도의 무급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멕시코,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총무급노동시간이 긴 사회였지만 성별 무급노동시간의 격차가 큰 사회에 속하였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이 하루 평균 2시간 23분으로 가장 적은 국가였다. 반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캐나다, 미국, 벨기에, 독일 등의 국가는 총무급노동시간이 그렇게 긴 국가들은 아니었지만 성별 무급노동시간의 차이가 적은 국가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가족의 돌봄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또한 큰 국가들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이 가장 긴 호주에서조차도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여성보다 적고, 가장 적은 무급노동시간 격차를 가진 노르웨이와 스웨덴조차도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여성의 무급노동시간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무급노동시간에서의 여성의 우위와 유급노동시간에서의 남성의 우위로 특징지어지는 젠더화된 생활시간의 문제가 전 세계적인 관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sup>5)</sup>

<그림 4> 여성과 남성의 무급노동시간 격차 현황(시간: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http://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OECD Social Policy Division(2010).

5) 이에 생활시간조사는 세계적으로 62개국에서 조사되고 있으며(<http://unstats.un.org/unsd/demographic/sconcerns/tuse>), UN은 세계 각국의 생활시간조사 질문지,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 틀, 샘플추출방법, 자료구축방법, 주요연구내용 등에 대한 전반적 소개를 하고 있다(UN, 2005). 또한 UN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에서는 각국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여주는 자료로 성별 취업여부별 하루생활시간과 특히 무급노동과 여가시간 실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http://w3.unece.org/pxweb/database/STAT/30-GE/98-GE\\_LifeBalance/?lang=1](http://w3.unece.org/pxweb/database/STAT/30-GE/98-GE_LifeBalance/?lang=1)). 뿐만 아니라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에서도 가족생활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성별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돌봄노동시간, 노동을 위한 이동시간 실태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document/4/0,3746,en\\_2649\\_34819\\_37836996\\_1\\_1\\_1\\_1,00.html](http://www.oecd.org/document/4/0,3746,en_2649_34819_37836996_1_1_1_1,00.html)).



### 3) 무급노동시간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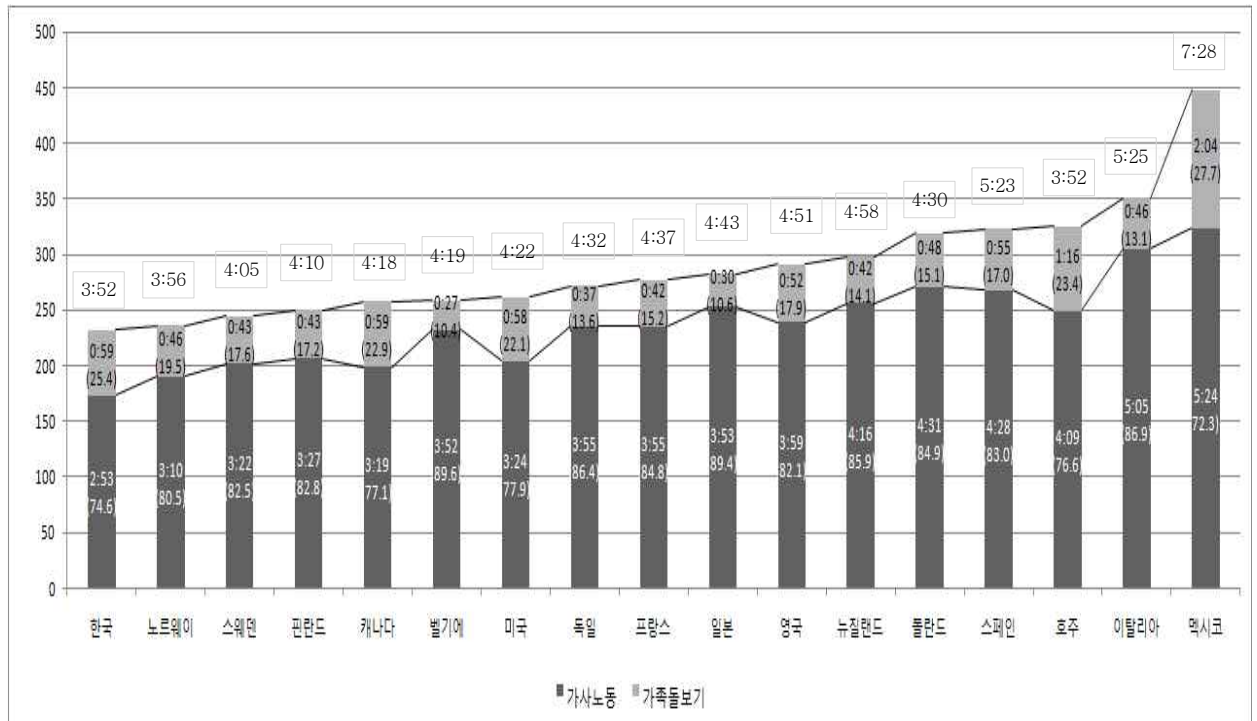
모든 국가에서 무급노동의 주 구성요소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사노동이다. 가사노동은 청소, 요리, 빨래, 집관리 등을 포함한다. 여성의 경우 평균 3시간에서 5시간의 가사 노동 시간을 가지고, 남성의 경우에는 평균 50분에서 2시간 30분 정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국가 간 차이를 보면 한국여성은 단지 2시간 53분의 가사노동을 가지고 무급노동의 75%를 가사노동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시간이 그들 무급노동시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돌봄노동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여성이 30분에서 2시간정도의 시간을 가지며, 남성은 10분에서 5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벨기에 여성의 경우 27분으로 가장 적은 가족돌봄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멕시코의 경우에는 2시간 4분, 호주의 경우 하루에 1시간 16분 정도의 긴 가족돌봄 노동시간을 가진다. 남성은 멕시코 남성이 50분으로 가장 긴 가족돌봄시간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남성이 7분으로 가장 적은 가족돌봄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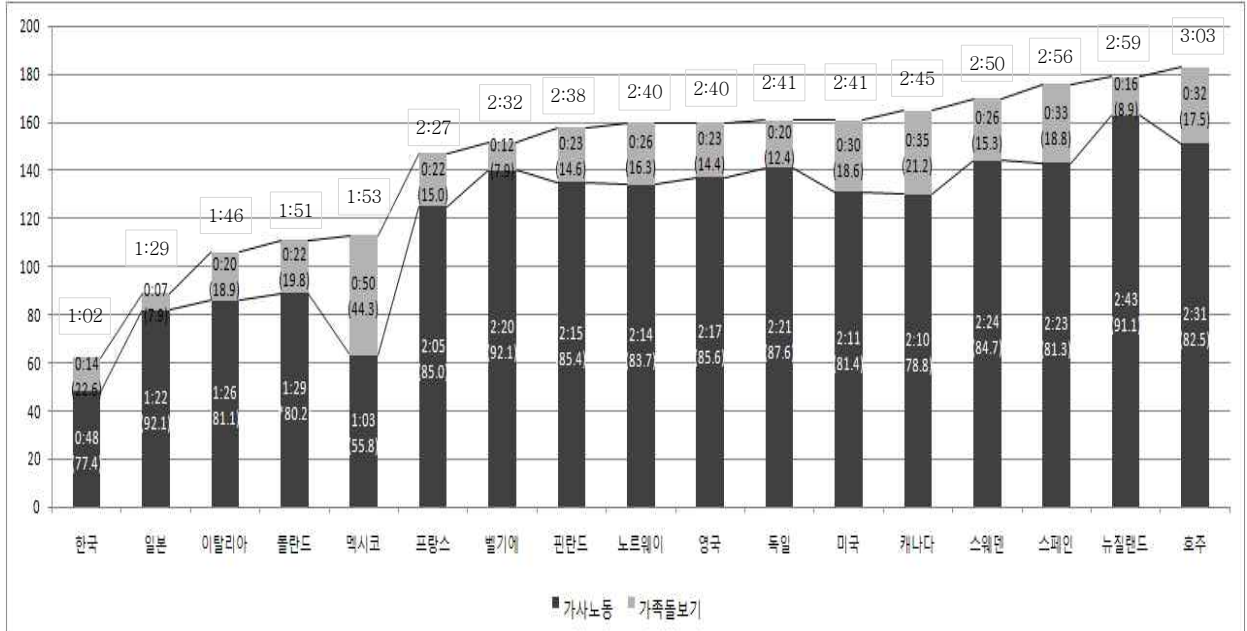
또한 한국사회 여성이든 남성이든 무급노동시간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적은 시간을 가지지만, 특히 한국 남성의 경우 일본남성보다도 27분,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길었던 멕시코 남성보다도 51분 더 적은 무급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한국 여성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길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일본과 멕시코 남성 다음으로 한국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그림 5> 성별 무급노동시간의 구성(시간:분(%))

[여성]



[남성]



자료: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http://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OECD Social Policy Division(2010).

## 5. 성별 무급노동시간과 국가정책

### 1) 노동시간조절정책과 성별 무급노동시간<sup>6)</sup>

OECD 국가들에서 국가의 노동시간 조절정책으로 생각되는 연간근로시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여성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남성과 여성의 무급노동시간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먼저,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가진 유급노동시간의 길이는 남성 그리고 여성의 무급노동시간과 어느 정도의 상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OECD 각국의 연간 근로시간의 길이와 남성과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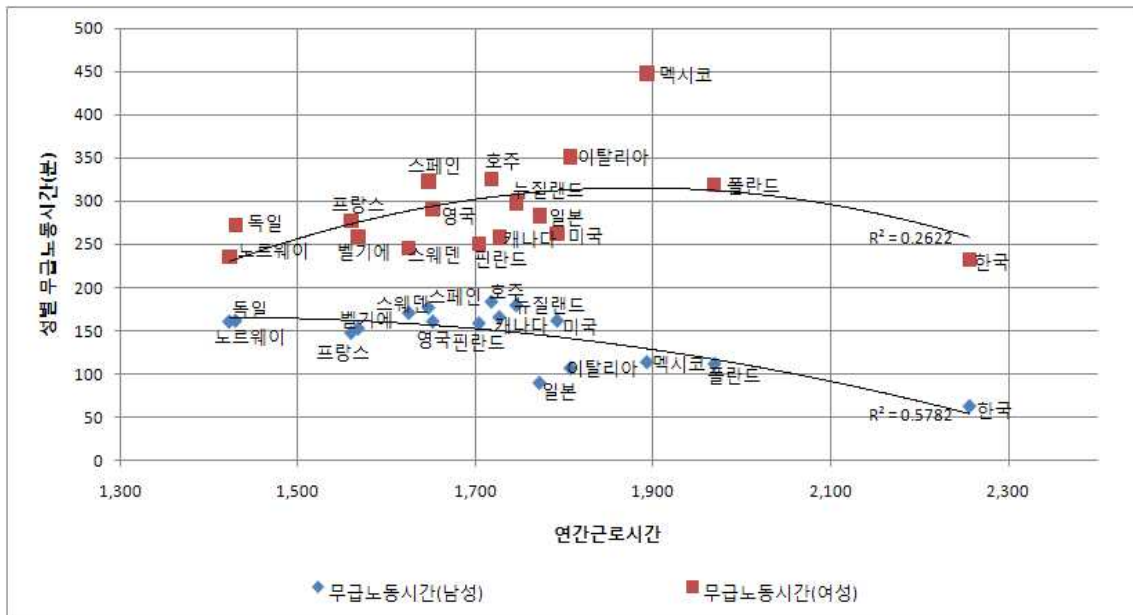
<그림 6>에서 보듯이 남성의 무급노동시간량과 연간근로시간의 산포도는 두 시간 사이에 부적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급노동시간이 긴 나라들에서는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이 적은 경향이 있고, 유급노동시간이 적은 나라에서는 무급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난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연간 근로시간이 긴 나라일수록 하루 무급노동시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급노동시간이 길수록 무급노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제한되면서 무급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남성의 무급노동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특이한 점은 한국으로 남성과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은 연간근로시간이 적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과 비슷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무급노동시간이 가장 적

6) 본 분석에서 사용된 연간근로시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여성 시간제근로자 비율, GDP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율, 여성의 추정임금, 여성권한척도 국가순위, 출산율, 삶에 대한 만족도 등 각 국가의 수치는 <부표1>을 참조할 수 있다.

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은 우리 사회가 가진 극도의 장시간 근로시간, 일중심의 노동문화와 관계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무급노동에 일차적인 책임이 여전한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시장노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급노동을 최대한 포기한 경우의 시간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림 6> 연간 근로시간과 성별 무급노동시간의 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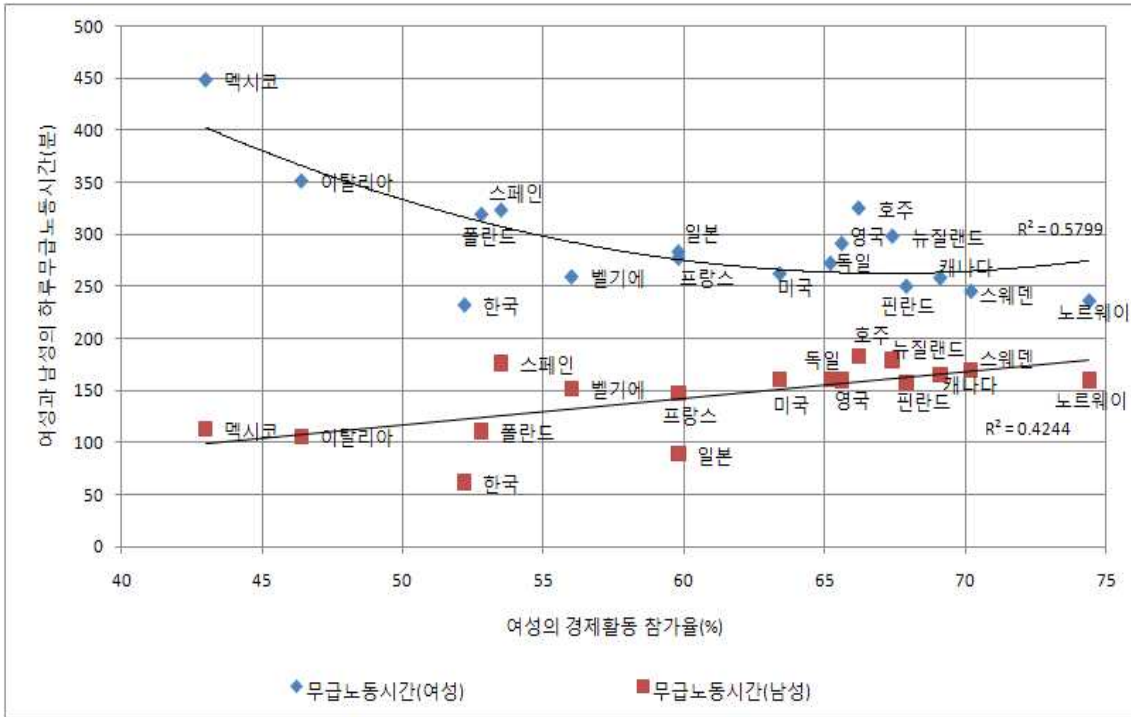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http://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다음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무급노동시간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여성은 전통적으로 가사일과 돌봄노동에 더 많은 책임을 가졌지만, 노동시장참여가 증가하면서 지난 몇 십년 동안 무급노동시간이 감소하여 왔고(Gurshny, J.; 2000), 남성의 무급노동 참여는 증가하여 왔다는 논의가 있기 때문이다(Robinson & Godbey, 1997; Romano & Source, 2007).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의 무급노동시간 사이의 상관관계는 강한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음 <그림 7>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할수록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의 분산의 58%를 설명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 무급노동시간 분산의 42%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들일수록 여성과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의 격차가 적어지면서 서로 수렴되고 있다. 이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3.0%로 가장 낮은 멕시코의 경우 성별 무급노동시간의 격차가 5시간 35분에 이르는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0.2%인 스웨덴과 74.4%인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75분, 76분의 격차만을 가지고 있다.

<그림 7>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성별 무급노동시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http://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employment outlook 2010에 수록된 2008년 15세~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임. 2009년의 경우 한국자료가 누락되어 있어 2008년 수치를 사용함.

정부는 여성의 일-가족양립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월등히 높고 상대적으로 출산율도 높은 국가들에서 특히 여성의 시간제근무 비율이 높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제시하여 왔다(제2차 새로마지플랜 2015). 그리고 구체적 실시방안으로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단시간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토록하고 신규고용을 유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음 <그림 8>의 여성 시간제 근로자 비율과 성별 무급노동시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성의 시간제근로자 비율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이 감소하다가, 여성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30%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면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간제근로 일자리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이 감소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무급노동에 대한 여성의 일차적 책임을 공고화하는 기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 여성 시간제 근로자 비율과 성별 무급노동시간의 관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http://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주: 시간제근로자 비율은 주당 30시간 이하근로자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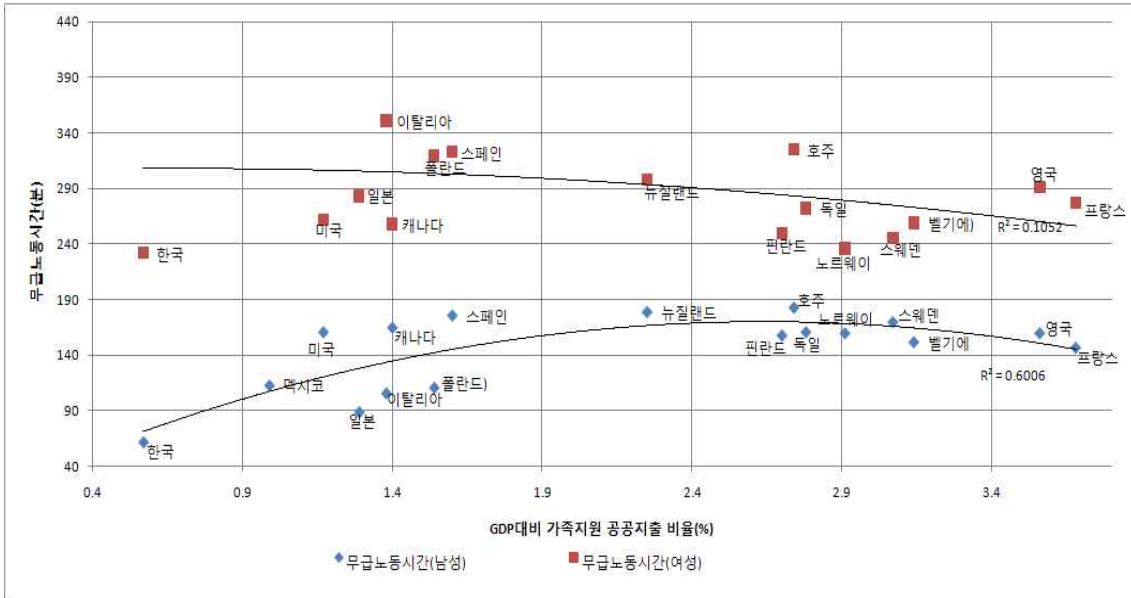
## 2) 가족정책과 성별 무급노동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이 있을 경우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원, 친인척의 인적자원 등의 정도에 따라 가족구성원이 부담하는 무급노동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국가단위에서도 각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지원정도에 따라 개별 가족이 부담해야 할 무급노동의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먼저 각국의 GDP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의 비율과 성별 무급노동시간의 정도가 어떠한지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림 9>에서 보듯이 가족지원 공공지출비율이 많은 국가일수록 여성의 무급노동부담은 적어지는 선형관계에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가족지원 공공지출비율이 증가할수록 남성의 무급노동시간도 함께 증가하다가 일정 비율이 넘어서면 다시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모휴가가 돌봄노동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아버지의 시간을 감소시킨다(Gornick and Mayers, 2003)는 선행연구가 있듯이 가족지원을 위한 국가의 공적자원 투입이 성 평등의 관점에서 다시 스크린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한국의 경우에는 GDP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율이 다른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공공지출비율이 적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여야 하지만 개인들이 부담하는 무급노동의 정도 또한 여성과 남성 모두 가장 낮다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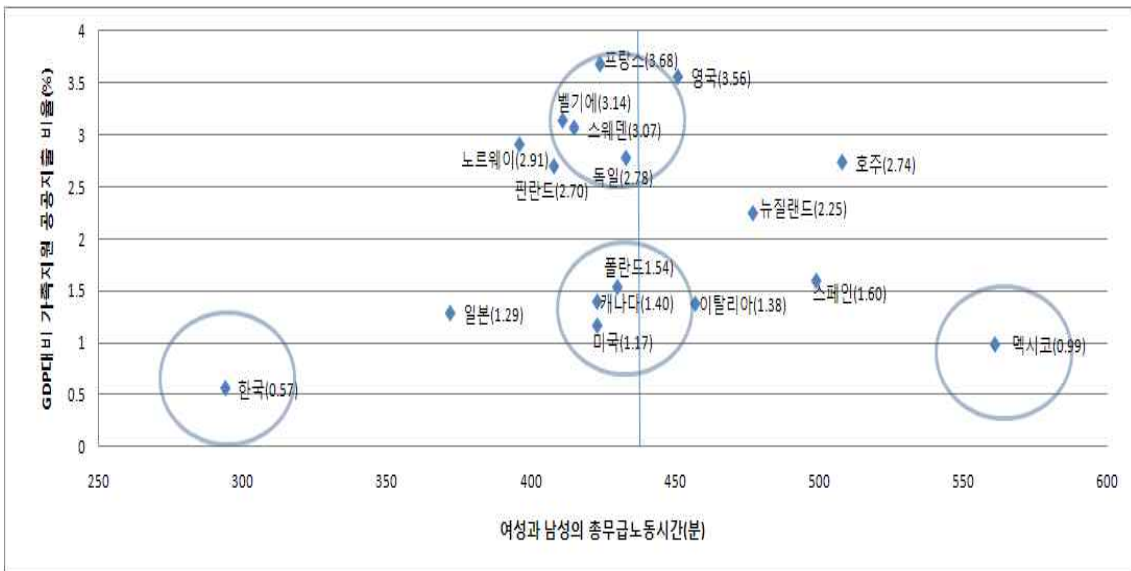
<그림 9> GDP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율과 여성과 남성의 무급노동시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http://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결국 한국사회는 ‘국가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적고, 개인들이 가구단위에서 가족을 보살 피기 위해 투입하는 시간의 양도 적다’는 특징을 가진다. 다음 <그림 10>에서 보듯이 한국 사회가 가족과 사회구성원에 대한 돌봄을 개별 구성원들에게 일임하고 있는 상황은 멕시코 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멕시코는 개별 구성원의 무급노동수행에 의해 가족원이 보살핌을 받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개별구성원들의 무급노동수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10> GDP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율과 여성과 남성의 총무급노동시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http://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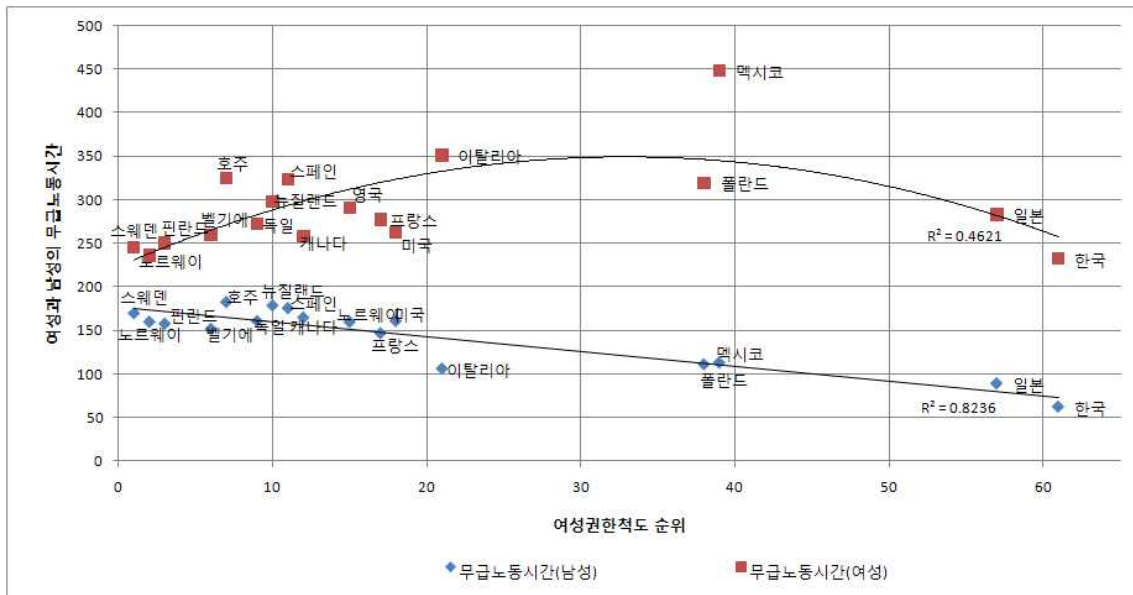
### 3) 성 평등 정책과 성별 무급노동시간

한 국가의 성 평등 정도는 여성과 남성의 무급노동참여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10년 여성가족부가 개발한 국가 성 평등 지표 중 가족부분의 성 평등 대표지표가 가사노동시간의 성비이다. 그런데 가사노동의 성비 점수가 23.0점으로 국회의원 성비 15.5점 다음으로 낮은 성 평등 지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홍 외, 2010).

그렇다면 OECD 주요 국가들의 성 평등의 정도와 남성과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는 UNDP에서 정치, 경제 등 사회의 중요부문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의사결정과정정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2009년의 경우 93개국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며, 2009년 한국은 61위를 차지하였다. 이 지표는 가정이 아닌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한 국가의 여성권한척도와 남성의 무급노동참여시간은 강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즉 사회에서 여성의 권한이 증가할수록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도 사회에서 여성권한이 증가할수록 무급노동시간이 감소하는데,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만 여성권한척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이 낮게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두 나라가 가지는 긴 유급노동시간과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11> 여성권한척도(GEM)와 성별 무급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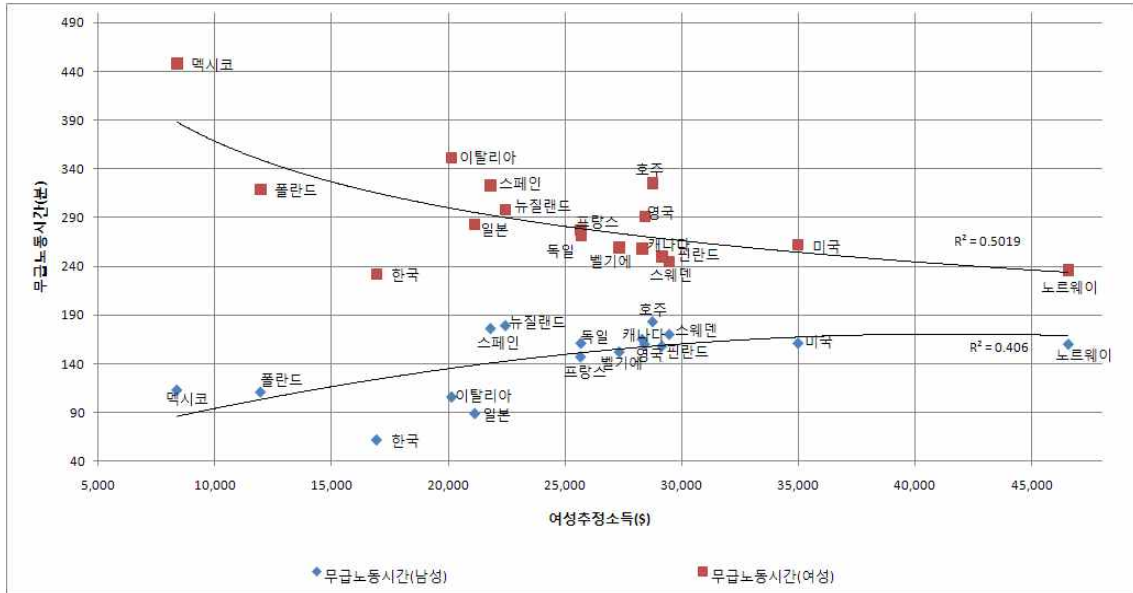


자료: UNDP(2009), Human Development Report, [http://hdr.undp.org/en/statistics/indices/gdi\\_gem/](http://hdr.undp.org/en/statistics/indices/gdi_gem/);  
[http://hdr.undp.org/en/media/HDR\\_20072008\\_GEM.pdf](http://hdr.undp.org/en/media/HDR_20072008_GEM.pdf)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http://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다음으로 그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여성의 소득 지표를 사용하였다. 추정소득은 국제기구나 단체에서 여성의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통된 지표이기 때문이다. 즉 GDI, GEM, GEL, GGI, SIGI 등의 지표에서 추정소득은 공통적으로 성 평등 지수의 구성 지표이다.

다음 <그림 12>에서 보듯이 여성의 추정소득이 증가할수록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은 감소하면서, 성별 무급노동시간의 격차 또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의 무급노동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이론에서 여성의 인적자본변수, 즉 학력이 높고, 수입이 높을수록 여성의 협상능력이 증가하여 남성의 무급노동을 이끌어내고,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은 감소한다는 이론이 전체 사회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표 12> 여성의 추정소득과 성별 무급노동시간



자료: UNDP(2009), Human Development Report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http://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 6.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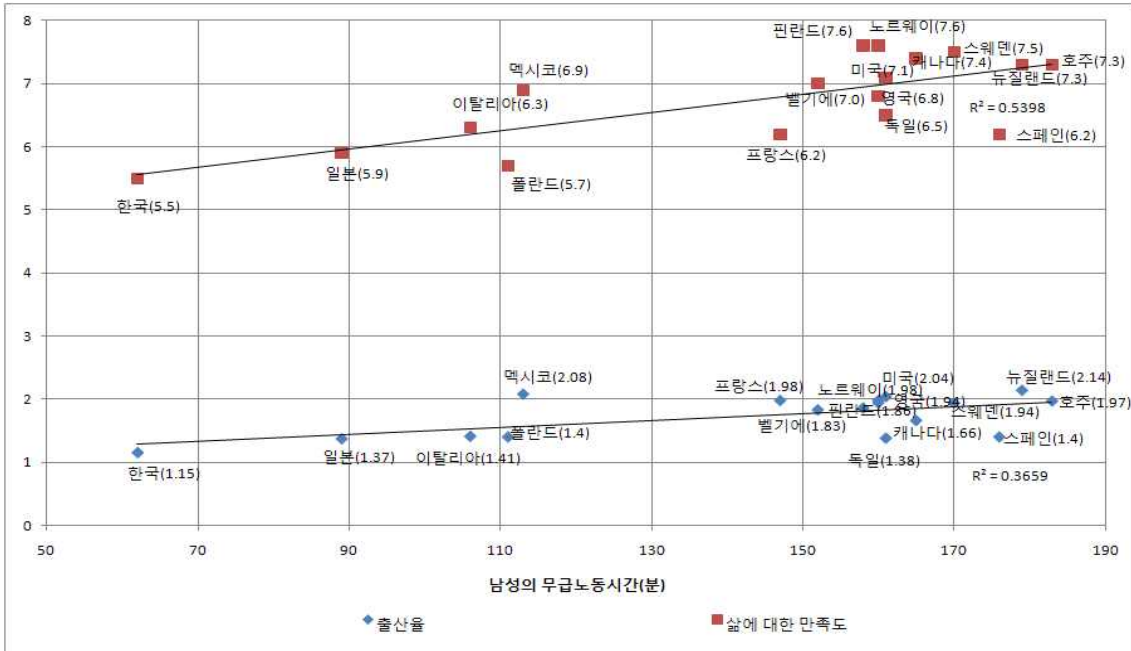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사회의 노동시간의 정도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정도, 국가의 가족지원 공공지출, 사회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한 정도나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남성의 무급노동 참여정도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반면 여성의 시간제근로자 비율의 경우에는 30%수준 정도까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키면서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을 감소시키고 있었지만, 전체 여성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의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여 남성과의 무급노동시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었다. 이것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일-가족양립을 위해 시간제 근로 일자리를 발굴하고자 하는 정책이 오히려 향후 성역할을 고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즉, 시간제 근로는 근로자의 노동선택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일-가족 양립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은 우리 사회가 가진 성평등 정책의 방향과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남성의 무급노동참여는 가구단위에서 여성과 남성의 협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성적 남성적 행동에 대한 사회적 변화와 사회가 사회구성원을 돌보기 위한 행동들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여성과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출산율과 같은 개인들의 일상생활, 사회문제 등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3>에서 보듯이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사회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삶에 대한 만족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결국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그 사회가 가진 문제들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 남성의 무급노동시간과 출산율 및 삶에 대한 만족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http://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부표 1> OECD 주요국 지표별 현황

구분	노동시간 정책			가족지원 정책	성 평등 정책		삶의 질	
	연간 근로시간 (시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15~64세)	여성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 (%)		여성 권한척도 (GEM) (순위)	여성 추정소득 (\$)	출산율	삶에 대한 만족도 (15세이상) (10점척도)
한국	2,256	52.2	14.2	0.57	61	16,931	1.15	5.5
일본	1,772	59.8	33.8	1.29	57	21,143	1.37	5.9
캐나다	1,727	69.1	27	1.4	12	28,315	1.66	7.4
프랑스	1,560	59.8	22.4	3.68	17	25,677	1.98	6.2
독일	1,430	65.2	38.1	2.78	9	25,691	1.38	6.5
이탈리아	1,807	46.4	30.5	1.38	21	20,152	1.41	6.3
노르웨이	1,423	74.4	30.4	2.91	2	46,576	1.98	7.6
스웨덴	1,625	70.2	19.8	3.07	1	29,476	1.94	7.5
호주	1,718	66.2	38.3	2.74	7	28,759	1.97	7.3
뉴질랜드	1,746	67.4	34.5	2.25	10	22,456	2.14	7.3
핀란드	1,704	67.9	15.9	2.7	3	29,160	1.86	7.6
스페인	1,647	53.5	21.4	1.6	11	21,817	1.40	6.2
영국	1,652	65.6	38.8	3.56	15	28,421	1.94	6.8

미국	1,792	63.4	19.2	1.17	18	34,996	2.04	7.1
벨기에	1,568	56	31.8	3.14	6	27,333	1.83	7
멕시코	1,893	43	10.4	0.99	39	8,375	2.08	6.9
폴란드	1,969	52.8	13.1	1.54	38	11,957	1.40	5.7

자료 1. 연간노동시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2. GDP대비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비율(2007), GDP대비 미취학아동에 대한 지출비율(2005), 출산율(2009), 삶에 대한 만족도(2006-2009): OECD Family Database([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http://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3. 여성권한척도, 여성추정소득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2009)

## 참고문헌

- 김태홍·전기택·주재선, 2010.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2010), 새로마지플랜2015
- 손문금(2005a), 맞벌이부부 여성의 이중부담과 시간의 특성,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_\_\_\_\_(2005b), 맞벌이부부의 무급노동분담에 대한 실증적 연구: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5호, 239-287.
- \_\_\_\_\_(2009), 「가족, 일과 여가생활」, 『새로 본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 \_\_\_\_\_(2010), 「저출산시대의 도시양육지원정책」, 『도시문제』 45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_\_\_\_\_(2011), 「맞벌이부부의 무급노동 및 여가 공유시간」, 『통계연구』 제16권 1호, 통계청.
- Gershuny, Jonathan(2000), *Changing Times*, Oxford University Press.
- Gornick, Janet and Marcia Meyers(2003). *Families That Work: Policies for Reconciling Parenthood and Employment*,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Hook, Jennifer L.(2006). Men's Unpaid Work in 20 Countries, 1965-2003.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 71, No. 4. 639-660
- Iversen, Torben and Frances Rosenbluth(2006). "The Political Economy of Gender: Explaining Cross National Variation in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and the Gender Voting Gap."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 1-19.
- Jacobs, Jerry and Kathleen Gerson(2004). *The Time Divide: Work, Family, and Gender Inequal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aria Clelia Romano and Dario BruzzeseSource(2007), Fathers' participation in the domestic activities of everyday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84, No. 1, pp. 97-116.
- OECD Social policy Division(2010). *Time use for work, care and other day-to-day activities*, OECD Family database
- Robinson, John P. & Godbey, Geoffrey(1997),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UN Economic & Social Affairs(2005), *Guide to Producing Statistics on Time Use: Measuring Paid and Unpaid Work*, United Nations.
- UN(2010), How to Produce Gender Statistics: general issues, *Developing Gender Statistics: A Practical Tool*
- UNDP(2005), *Gender Responsive Budgeting: Manual for Trainers*.

<http://unstats.un.org/unsd/demographic/sconcerns/tuse>  
[http://w3.unece.org/pxweb/database/STAT/30-GE/98-GE\\_LifeBalance/?lang=1,](http://w3.unece.org/pxweb/database/STAT/30-GE/98-GE_LifeBalance/?lang=1)  
OECD employment outlook(<http://www.oecdbookshop.org/oecd/pdfs/browseit/8110081E.pdf>)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document/4/0,3746,en\\_2649\\_34819\\_37836996\\_1\\_1\\_1\\_1,00.html](http://www.oecd.org/document/4/0,3746,en_2649_34819_37836996_1_1_1_1,00.html))  
[http://hdr.undp.org/en/statistics/indices/gdi\\_gem/](http://hdr.undp.org/en/statistics/indices/gdi_gem/)